

주승용 “선당후사... 오늘 최고위원직 복귀”

문재인 대표와 오찬회동... “계파청산, 총·대선 승리 노력”

당 내외 탈당·신당 추진 움직임에 상당한 파장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사진) 의원이 24일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지난 5월8일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사퇴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공갈을 친다”는 발언에 격분,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사퇴 선언을 한지 108일 만이다.

주 최고위원은 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4일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참석해 최고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와 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계파정치 청산에 따르는 당의 일체화와 통합이 최고의 핵심이자 총선과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새정치연합이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과 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면서 신뢰 회복을 통해 총·대선 승리에 앞장서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와 회동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는 남북 간 군사 대치 때문에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총·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더 큰 혁신과 더 큰 통합이 이뤄져야 일대일 구도로 새누리당과 제대로 겨룰 수 있다”며 “지도부는 혁신위원회의 그림자 뒤로 물러나 있기보다 당 혁신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당 지도부에서 ‘비주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주 최고위원의 당내 복귀로 당내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은 일정 정도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류와 비주류의 불신의 깊이가 깊다는 점에서 주 최고위원의 복귀가 당장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주 최고위원이 지도부 내의 비주류 인사들과 함께 공천혁신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다면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 최고위원의 복귀는 사실상 개인적으



로 정치적 퇴로가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게 주류 진영 견제에 나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최고위원의 복귀로 당 내외의 탈당 및 신당 추진 움직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도부가 사실상 정상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했던 신당 창당의 흐름은 더욱 느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9월 중순이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당 창당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 일각에서는 주 최고위원의 복귀에 대해 “결과적으로 당내 주류 세력

에 배기 투항한 셈이며 별다른 성과가 없는 빈손 복귀”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구체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복귀보다는 버티는 것이 당내 주류 세력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그동안 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수차례 당내 복귀를 요청했지만 “당무 거부가 아니라 이미 사퇴를 선언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17개 시·도당위원장이 주 최고위원의 복귀를 촉구하고 20일 전남 의원 만찬 회동에서도 만장일치로 복귀 권유가 이어지자 주 최고위원은 “속고 하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포격 도발 긴장 고조와 판문점 고위급 회담에 대한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박대통령 집권 전반 총체적 국정 실패”

새정치, 임기 반환점 맞은 박근혜 정부 맹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임기 반환점(25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집권 전반은 총체적 국정 실패이며, 그 책임은 고집불통의 폐쇄적·제왕적 리더십에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명의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 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며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통합 역시 사회분열과 갈등만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임기반환점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보도자료 배포로 대신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 · 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을 5대 실정으로 꼽은 뒤 “수첩”에 의존한 인사파탄은 총체적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라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시간 부

재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 대처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의 총체적 무능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위기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맹공을 가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주요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세 감소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급격한 성장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뿐이었다”며 “청년실업을 급증,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 끝없는 전·월세난 등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안보 컨트롤타워 부

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며 “광복 70주년에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기념 남북대결만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조심으로 돌아가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대통령, 정치쇄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임기 후반기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5·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성장위원회 주최로 ‘기묘에 선 한국 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내년 총선 목표서 출마”

중진 용퇴론 일축... 당내 남북 위기관리 위원장 선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중진 용퇴론과 관련, “내년 총선 때 분명히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공천 때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가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데 대해 “100% 밖에 의뢰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의미에서 당을 잘 아는 당내 인사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이를 놓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평가위가 평가자료를 밀봉한 채 공천관리위로 넘기도 롭다는 것과 관련, “투명한 평가를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전 원내대표는 23일 당이 남북 대치 상황과 관련해 위기관리를 위해 설치한 당내 기구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새정치연합은 박 전 원내대표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특사를 맡아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했으며, 회의 이후 문재인 대표가 직접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구의 정식 명칭이나 활동 계획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유죄 판결에 대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 사유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 정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순종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를 포함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여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걸 “야당 의원 10명 수사 소문”

“보복 사정면 전면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우리 당을 곤경에 몰아넣는 듯한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문이긴 하지만 야당의원 10명 정도를 이미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검찰이 모태위증 혐의에 기소한 권은희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 이 정권의

정치검찰, 정치사법부가 합심한 반민주적 보복사정 폭거를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 당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이 앞장서 박근혜정권의 기획사정 보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간접주지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새로운 신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시작한 새누리당 정권의 간교한 사정보복에 한 전 총리도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곤 의원 ‘한·일수교 50주년 청소년토론회’ 개최

국회 세계도덕재무장(MRA) 의원연맹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원연맹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양국은 역사, 영토, 경제적 경쟁 관계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고조돼 신뢰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면서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청소년들은 ‘긴장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 후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한일 양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를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일본 민주당 하쿠 신쿤(白眞勳) 중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